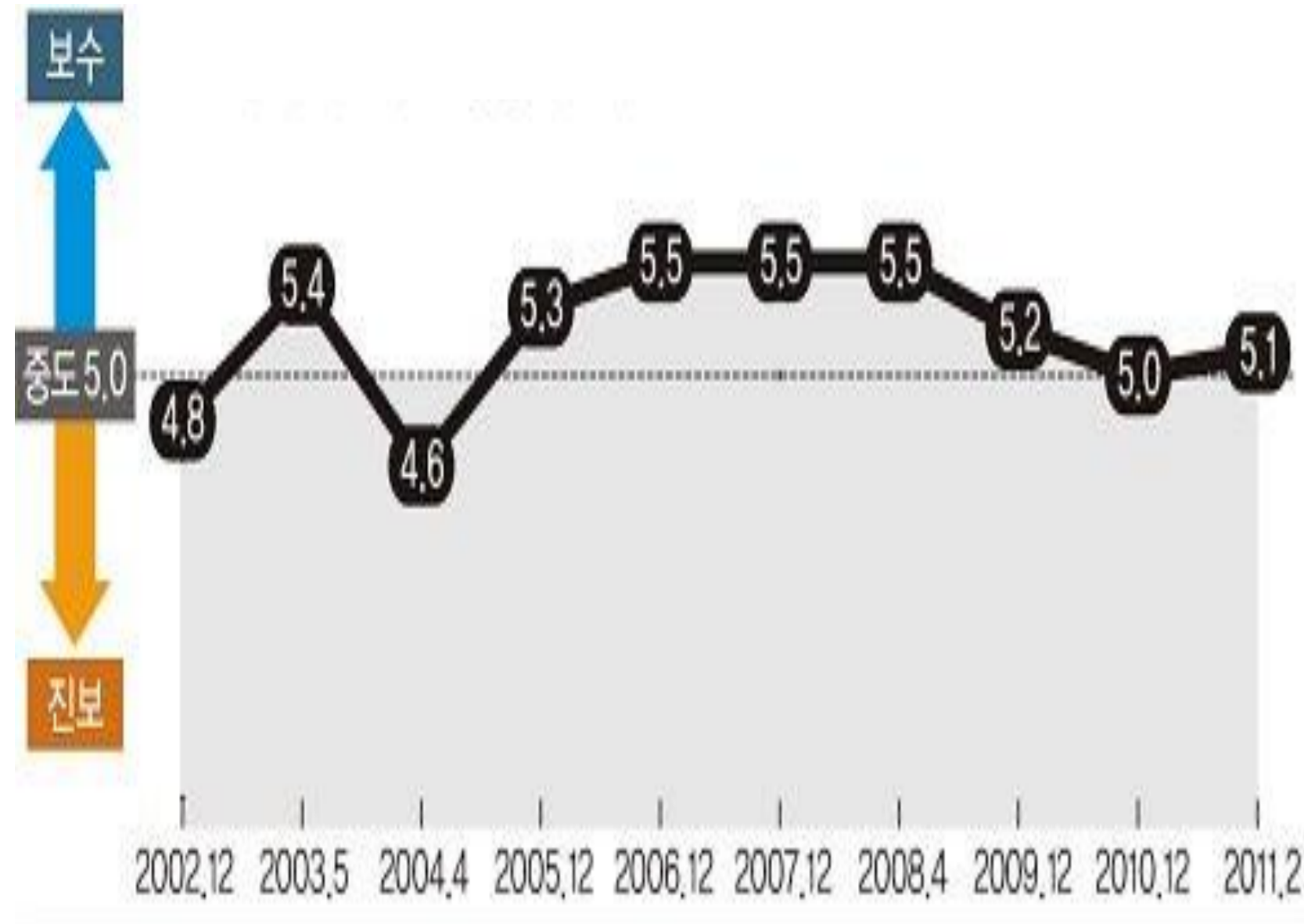


신문성향의 차이는 구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Open Minitab Poster Competitive Exhibition

김수영 · 신동훈 · 한범석

주제 선정



[그림 1] 한국사회이념 성향 추이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보수, 진보 진영의 대립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한국 사회에 이념성향 변동이 발생한다.
이러한 언론매체들은 자신들의 이념에 맞게 이슈들을 재해석하여 보도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문사의 보도에서 이러한 특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신문사별 성향이 포함된 채로 게재된 기사들이 실제로 구독자에게 얼마나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알아보고자 설문과 실험을 통해 각 신문의 성향 구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연구 절차 및 일정

연구 절차

신문 선정

01 - 보수/진보 성향 대표 신문 선정
- 구독자가 느끼는 신문의 주요 영향 요인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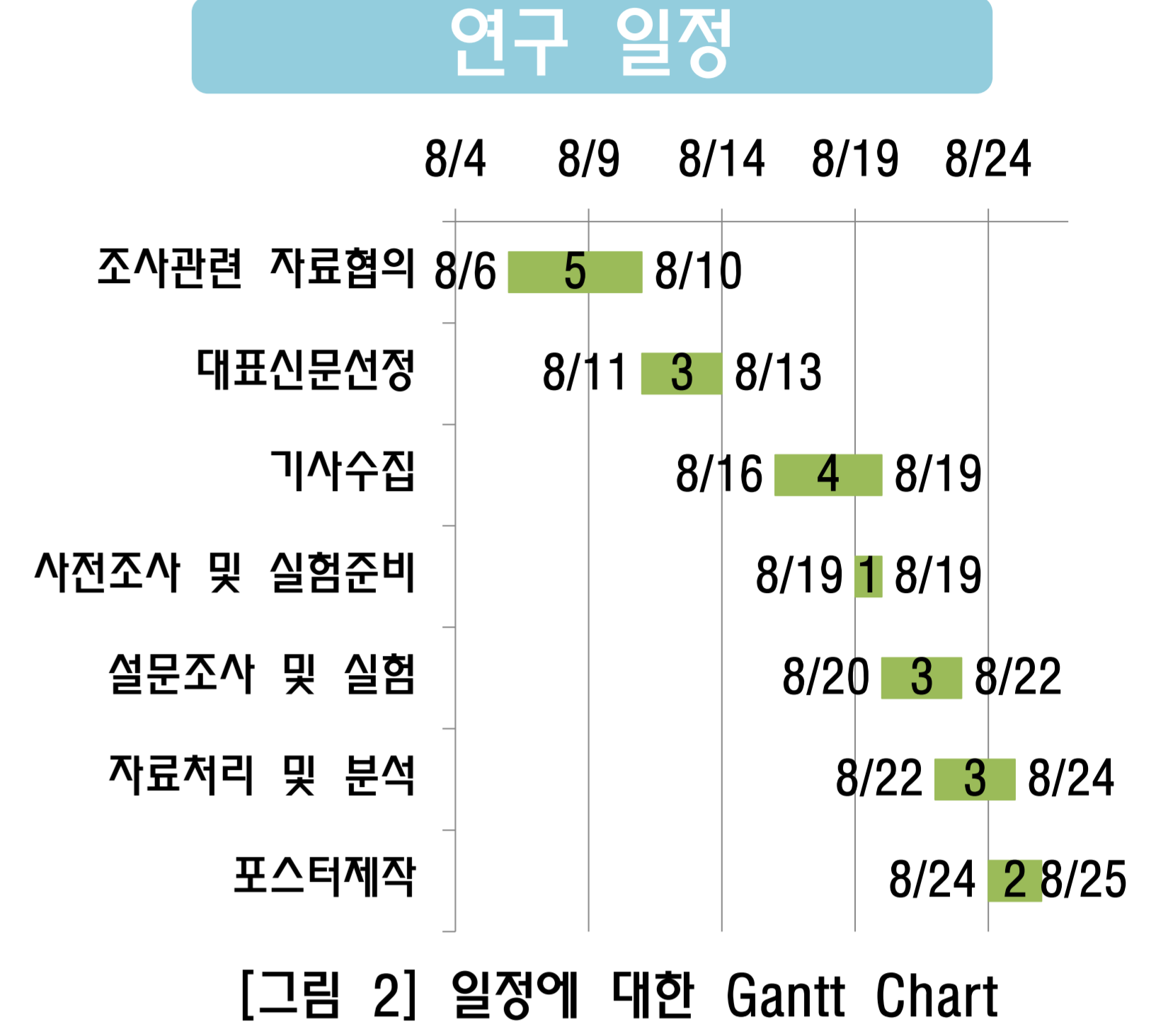
차이 분석

02 - 최근 이슈 기사 선정
- 영향 요인에 대한 신문사 별 차이 분석

영향력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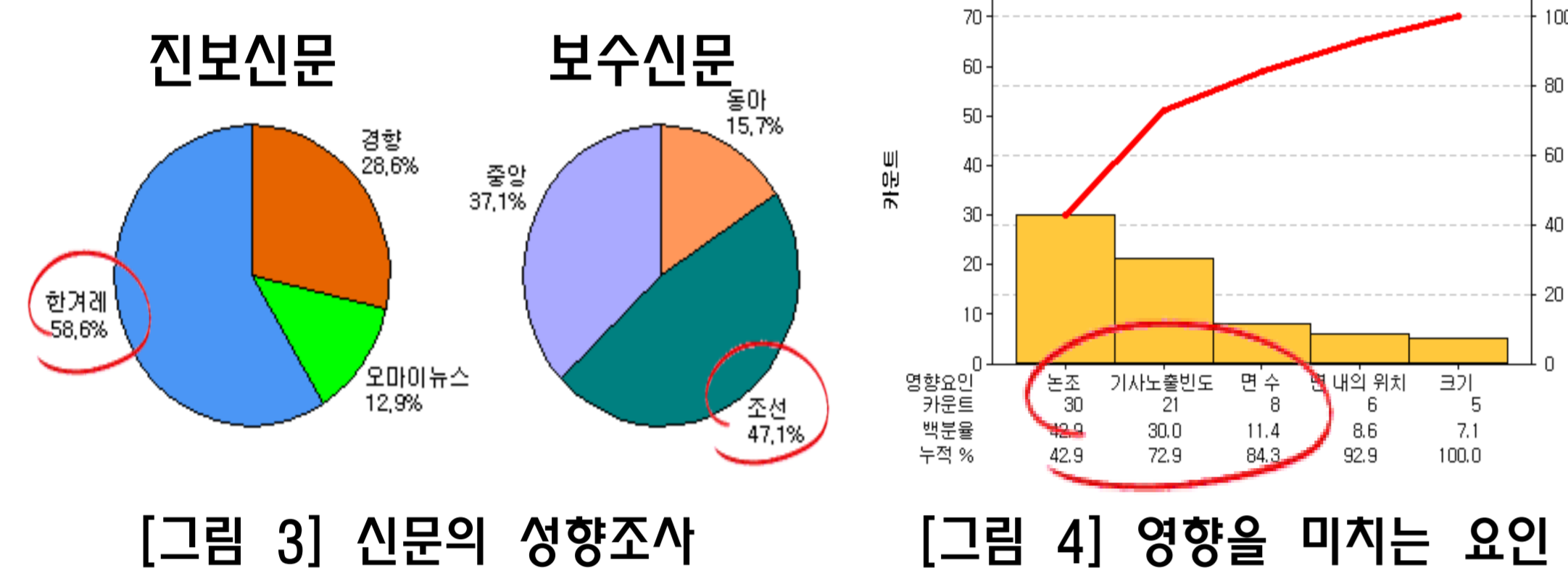
03 - 연령, 지식수준 등이 유사한 실험군과 대조군 설정
- 차이에 따라 미치는 영향분석

설문지침 및 실험
2차 자료 (신문 : S/W Eye Surfer활용)
영향력 실험에 사용하는 기사는 피실험자 간 사전 지식의 차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과거의 기사를 객색하여 사용한다.



통계분석 1. 신문의 성향 차이

조사범위 선정



[그림 3] 신문의 성향조사

[그림 4] 영향을 미치는 요인

편의 표본 추출로 70명을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진보신문은 한겨레, 보수신문은 조선일보**가 선정되었다. 설문 구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신문기사의 논조, 기사의 노출빈도, 게재된 면이 상위 3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는 신문에 따른 3요인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여, 신문 간의 차이 유무를 판단한다.

- 조사방법 : 최근 이슈 중 차이가 예상되는 '국정원' 과 'NLL' 관련 기사에서 구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3요인에 대해 조사하여 신문 간 성향차이를 분석한다.
- 조사기간 : 'NLL' 관련(6.26~7.10), '국정원' 관련(8.5 ~ 8.19)

진보와 보수 성향 대표 신문 차이

1) 기사 빈도수

신문	국정원	NLL
한겨레	78	52
조선	38	71

<표 1> 신문기사 수

2) 논조 차이 : 2-표본 T 검정 (95%신뢰수준)

- 조사 기간 내 기사에서 논조를 드러내는 Keyword 추출
- 빈도 조사 후 신문 간의 빈도 차이 2-표본 T 검정

<표 2> 기사에 대한 신문사 별 Keyword

신문	한겨레 기사 Keyword	조선 기사 Keyword
국정원	민주주의, 선거개입, 공작	감금, 왜곡, 대북심리
NLL	평화, 공동구역, 왜곡	포기, 연평해전,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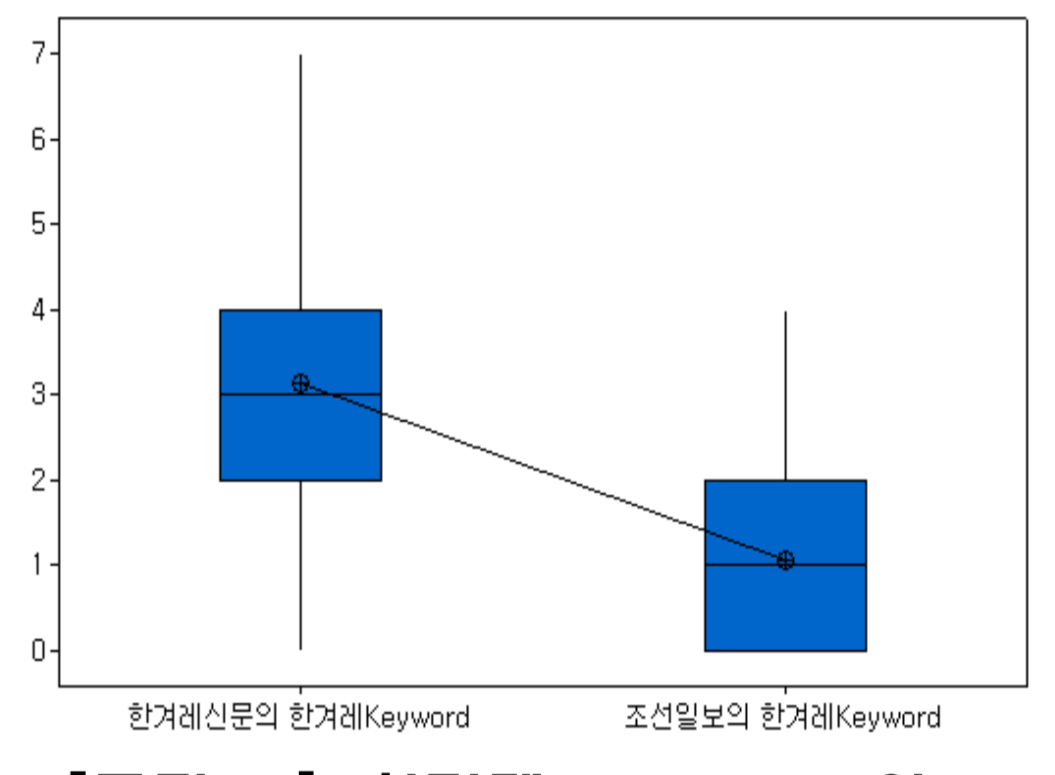
<표 3> 신문 별 Keyword 차이 2-표본 T검정 결과

주제	구분	한겨레기사 Keyword		조선기사 Keyword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국정원	한겨레	3.13	1.7	1.096	0.913
	조선	1.06	1.04	3.48	2.47
NLL	한겨레	3.88	2.59	0.359	0.602
	조선	0.89	1.11	1.66	1.55
차이검정		T-값=7.80	P-값=0.000	T-값=-7.46	P-값=0.000
차이검정		T-값=8.68	P-값=0.000	T-값=-4.99	P-값=0.000

- 귀무가설 : 두 신문의 특정 주제기사에는 각 신문의 Keyword 수 차이가 없다.
- 대립가설 : 두 신문의 특정 주제기사에는 각 신문의 Keyword 수 차이가 있다.

✓ 각 신문의 특정주제 기사에 대한 논조를 나타내는 Keyword 수는 신문 별로 차이가 있다.

✓ 두 신문 간 논조를 나타내는 Keyword 수의 차이는 두 신문이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논조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 한겨레 Keyword의 신문 별 차이 상자그림

3) 1면 게재 여부 차이 : 두 비율에 대한 검정 (95%신뢰수준)

- 귀무가설 : 한겨레와 조선일보에서는 특정기사의 1면 게재 비율이 차이가 없다.
- 대립가설 : 한겨레와 조선일보에서는 특정기사의 1면 게재 비율이 차이가 있다.

<표 4> 기사 1면 게재 여부 차이 두 비율에 대한 검정 결과

주제	한겨레 1면 게재		조선 1면 게재		차이검정	
	X	표본 p	X	표본 p	Z	P-값
국정원	72	0.923077	33	0.868421	0.87	0.383
NLL	49	0.942308	63	0.887324	1.11	0.267

✓ 신문에 따른 기사의 1면 게재 비율은 차이가 없다.

통계분석 2. 신문성향차이가 구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실험 및 설문

1) 기사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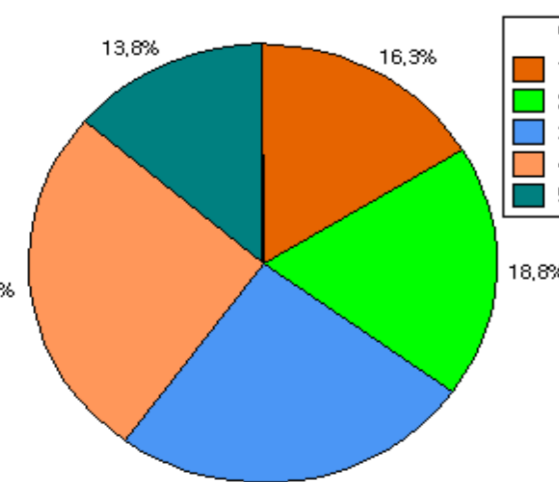
중부세(경제), 신문법(사회)과 관련된 기사를 조선, 한겨레에서 각각 1개씩 선정하였으며, 크기와 위치, 게재일의 차이는 없다. 또한, 설문자의 배경지식 차이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 기사를 외국사제로 객색하여 활용하였다.

<표 5> 선정된 기사 내의 신문사별 Keyword 차이

주제	신문사	Keyword
중부세	조선일보	세율인하, 개편, 혜택, 부담감소
	한겨레	집부자 혜택, 서민, 격차 심화
신문법	조선일보	언론침해, 위법, 민주주의, 자유
	한겨레	언론독립, 다양성, 국가지원, 투자

2) 대상 선정 및 설문방법

다양한 연령대로 두 신문의 구독실험집단의 구성이 연령 및 지식수준 면에서 유사하도록 하였다. 피실험자는 기사를 읽고 주제에 대한 독자 의견을 5점 척도로 응답한다(독자의견 : 점수가 낮을수록 중부세 or 신문법에 부정적). 또한 그 이유를 20자 이상으로 주관식 서술한다. 연구 주제는 '단어와 문장구조에 따른 정보전달성'으로 제시하여 예측 응답을 방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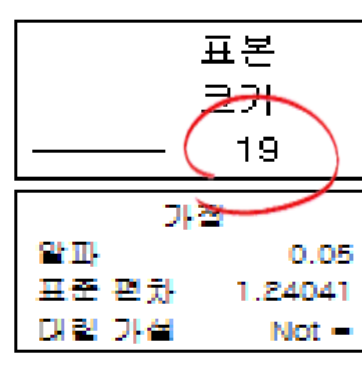


[그림 6] 피실험자 연령구성

신문이 구독자에게 주는 영향

1) 신문 / 독자 의견 : 2-표본 T 검정 (95%신뢰수준)

- 귀무가설 : 신문 성향에 따라 독자 의견에 차이가 없다.
 - 대립가설 : 신문 성향에 따라 독자 의견에 차이가 있다.
- ✓ 검정력 95%에서 신문사 별 19개의 표본 필요. 보유한 80개의 표본으로 유효한 2-표본 T 검정 가능.



[그림 7] 2-표본 T 검정에 대한 검정력 분석

<표 6> 신문 / 독자 의견 : 2-표본 T 검정 결과

신문	평균	표준편차
조선	1.750	0.840
한겨레	3.10	1.22
차이검정	T-값=-5.78	P-값=0.000

✓ 신문 성향에 따라 독자 의견에 차이가 있다.

2) 나이 / 독자 의견 : 일원 분산 분석 (95%신뢰수준)

- 귀무가설 : 구독자의 나이에 따라 독자 의견에 차이가 없다.
 - 대립가설 : 구독자의 나이에 따라 독자 의견에 차이가 있다.
- ✓ 보유한 80개의 표본으로 검정력 95% 이상 일원 분산 분석 가능.

<표 7> 나이 / 독자 의견 : 일원 분산 분석 결과

출처	DF	SS	MS	F	P
나이대	4	24.90	6.23	4.83	0.002
오차	75	96.65	1.29		
총계	79	12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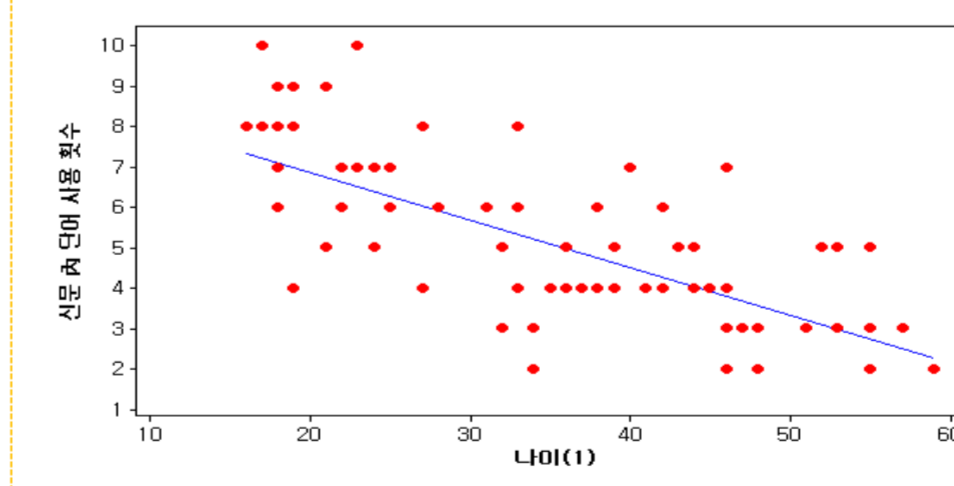
✓ 구독자의 나이에 따라 독자 의견에 차이가 있다.

3) 나이 / 독자 의견 (추가) : 상관 분석 (95%신뢰수준)

나이와 독자 의견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나이와 신문 내 단어 사용 횟수의 상관 분석을 시행했다.

(신문 내 단어 : 설문자가 서술형 응답에서 사용한 신문 속 단어)

- 귀무가설 : 나이와 신문 내 단어 사용 횟수에는 상관 관계가 없다.
- 대립가설 : 나이와 신문 내 단어 사용 횟수에는 상관 관계가 있다.



상관 계수 : -0.721
P-값 : 0.000

[그림 8] 나이 / 단어 사용 횟수 : 산점도

- ✓ 나이와 신문 내 단어 사용 횟수에는 음의 상관 관계가 있다.
- ✓ 청년층의 구독자들은 기사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면, 중/장년층의 구독자들은 자신만의 논리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4) 기사분야 / 독자 의견 : 2-표본 T 검정 (95%신뢰수준)

- 귀무가설 : 기사분야(경제/사회)에 따라 독자 의견에 차이가 없다.
- 대립가설 : 기사분야(경제/사회)에 따라 독자 의견에 차이가 있다.

<표 8> 기사분야 / 독자 의견 : 2-표본 T 검정 결과

분야	한겨레		조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경제	3.05	1.15	1.60	0.681
사회	3.15	1.31	1.90	0.968
차이검정	T-값=-0.26	P-값=0.799	T-값=-1.13	P-값=0.265

✓ 기사분야에 따른 독자 의견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 및 한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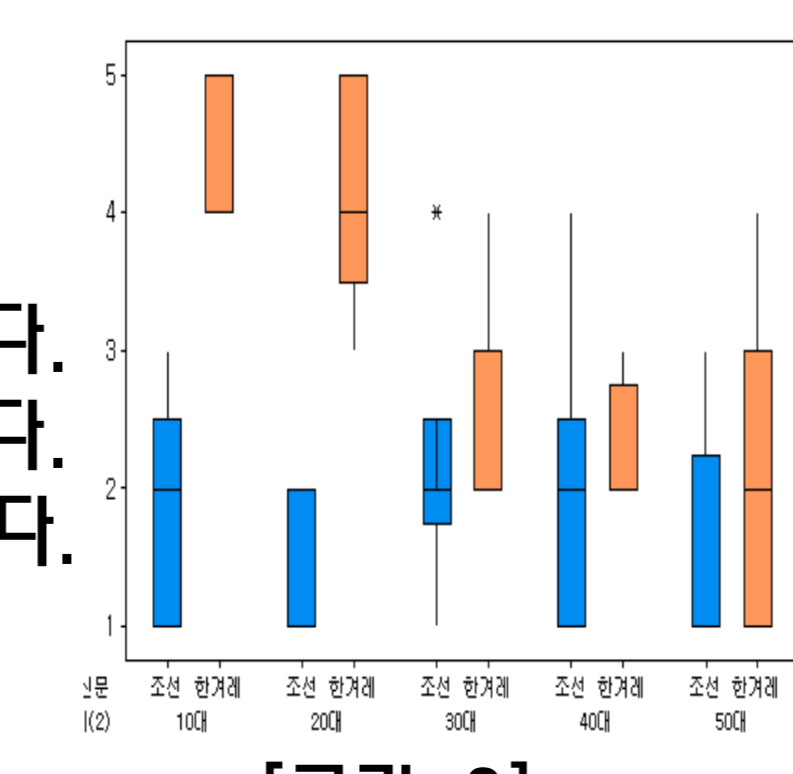
분석 정리

신문의 성향 차이

- 신문에 따라, 기사의 논조, 수에 차이가 있다. 1면 게재 여부에 차이가 없다.
- 구독자가 중요시 여기는 신문의 3요소 중, 2개 요소에 차이가 존재한다.
- 신문에 따라 성향 차이가 있다.

신문 성향이 구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 신문의 성향에 따라, 독자 의견에 차이가 있다.
- 독자의 나이에 따라, 독자 의견에 차이가 있다.
- 기사의 분야에 따라, 독자 의견에 차이가 없다.
- 신문의 성향은 구독자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젊은 층에게 더 크다.



[그림 9] 나이/독자 의견 상자그림

우리의 생각

의식이 있는 중/장년층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신문을 취사선택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족한 의식수준으로 기사에 휩쓸리기 쉬운 청년층은 보수-진보성향의 신문을 같이 구독하며, 올바른 의식을 쌓아야 할 것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문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오늘날, 편협하지 않은 의식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한계점

- 신문에 따른 기사수의 차이 분석에서 2개 주제만을 표본으로 이용해서 유효한 수치를 뽑아내지 못했다.
- 유효한 설문을 위해 설문지 문항에 정치성향을 포함시키지 않아 기존 정치성향은 파악 불가능했다.
- Keyword 등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척도는 그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 연구 및 검증이 필요하다.